

근로관계법령을 중심으로



이 영 자
(울산기독병원 간호과장)

<차 례>

1. 간호원이란 직업을 갖기까지의 과정
2. 간호업무란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나
3.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본 간호원의 업무
4. 우리가 바라는 사회
5. 임상간호원의 자세

1] 간호원이란 직업을 갖기까지의 과정

정규대학의 간호학과과정이나 간호전문대학의 3년제 간호학과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간호행위를 할 수 있다.

사실상 간호학과를 선택할 때 부터 간호원의 직업은 선택이 되어진 것이다. 졸업후 간호원의 면허란 소관 행정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특수한 행위를 하도록 허락을 받는 것인데 간호원의 면허는 보건사회부 장관을 통하여 간호행위를 의무로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어떠한 일반 기술보다도 어려운 실습과 교육과정을 거쳐 면허를 소지하게 된다.

2] 간호업무란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나

다른 직업 특히 다른 여성 직업과 비교하여 입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써의 간호업무의 특질을 생각해 보자. 사회에서는 간호업무를 성직자나 거기에 유사한 평범한 인간이 가지는 감정을 초월한 봉사정신 내지 희생정신 등 여러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고 간호원을 성직자나 그 이상으로 대우하지도 않으면서 간호원에게 댓가 없는 희생과 봉사, 친절만을 바라고 있다. 바라건대 나이팅게일의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 간호원들이 희생과 봉사를 모토로 하는 직업인으로 사회에 이바지함에는 우리에게만 만족과 안정사회에서의 정당한 대우와 피로를 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만 되리라 믿는다. 이러한 문제들이 다소 갖추어 질 때, 간호원의 참 모습이 더욱더 승화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애로점이 줄어들 것이며 사회에서 간호원의 전문화된 간호를 받는 데 하등의 마찰이 배제되리라 생각한다. 간호원의 업무가 항상 긴장되어야 하고 정신과 육체에 병적인 요소를 다스리고 간호하는 것이 업무중의 한 분야다. 그렇다고 간호임무가 상품이나 작품을 만들듯이 한정된 시간동안 정해진 작품을 배당된 수량만큼만 생산해 내듯이

간단명료하게 평가하지 못한다. 상품을 만드는 곳엔 탁월한 기술만 필요할지 모르나 간호원은 변화되는 인간의 감정에 맞추어 자기의 인격과 기술과 배운 지식을 조절하며 맞추어 줘야 한다. 즉,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사나 감정에 따르는 행동의 자유가 매우 구속된다는 것이다. 사회는 과실이나 사고에 대한 비판은 다른 직업여성보다도 더욱 심하다. 즉, 형사적인 책임까지를 감수하는 때도 많다. 물론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기 때문에 좀더 본질적이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율이 높음을 다하는 사실이나 거기에 대비하기 보다는 스스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같은 생명을 인지하면서 과실과 사고를 예방하려는 계속적인 조심성이 필요하리라 믿는다. 설명 그렇게 조심하기에는 독자적이고 능률적인 일을 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뒤따르더라도 생명은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단 한번의 실수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환자에게 봉사하는, 즉 회복을 돕고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환경을 조절하여 근본적무인 생명보존과 고통을 경감시키고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간호업무를 행하는 마음의 바탕과 준비는 배운 전문지식과 갖추어진 교양이 임상생활에서 계속 연구하고 환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다.

③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본 간호원의 업무

근로기준법중 보편적인 사항만 통괄적으로 훑어보기로 한다.

첫째, 간호업무중의 야간 근무는 타직종의 야간 근무와 같지가 않다. 주로 환자는 낮보다도 야간에 더욱 악화되기 쉬우며 따라서 간호업무는 더욱 긴장된다. 환자의 세심한 증세까지 관찰하고 기록하여 낮 수간호원을 거쳐 담당의사에게 보고하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환자가 위험한 증세를 나타냈을 때는 한시라도 지체않고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여 즉시 알맞는 처방을 이행해야 한다. 그 시기에 맞는 적절한 처치가 늦었을 경우 매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야

간의 업무는 낮에 하다남은 잔여일을 마무리 하듯이 안일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상태변화에 대한 관찰과 보고가 있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행해지고 있다. 야간의 업무는 몇배의 과중한 부담을 갖고 환자를 지켜야 한다. 야간 근무자에게 있어 3일이상의 연속근무는 매우 무리한 업무라 생각되며 3일 연속근무후 3일정도의 휴식시간을 법적으로 마련해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타 직종과같이 1日 3회 교대하여 근무를 하지만 송환자마다 실시한 간호 및 상태경과를 인계받는 자가 충분히 알아야만 한다. 그리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단절되지 않는 연결된 치료나 간호를 제공받도록 되어야만 한다.

둘째, 간호원은 근무중 보이지 않는 여러가지 균에 노출되어 있다. 생명의 위협을 갖게하는 각종 전염병을 다스리고 치료하는 도중 간호원은 항상 긴장하고 자신이 병의 매개체가 되지 않게 조심하고 있지만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입원환자 5명에 간호원 2인이 필요하며 의태환자 12인은 입원환자 1명과 같은 비율로 규정짓는다. 간호원의 업무가 앞서서도 말했듯이 일정한 시간을 두고 작품을 생산해 내듯 단순하지가 않다. 경영자측에선 법의 태두리안에 충분한 인원이 충당된 것처럼 과중한 업무를 요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중환자실의 환자를 위하여 한겨번에 여러가지의 간호를 해야만 할 때 간호원은 인력의 부족으로 매우 고되고 난처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 생산공장에서는 생산품을 덜 만들어 낸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지만 우리의 업무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되는 과오를 범한다. 이것이 과실이나 업무태만으로 판단하기엔 잘못된 인원보충이며 또한 환자된 입장에선 충분한 간호를 받지 못하는 불안으로 우리가 바라는 전 인간호 질병치료의 목적을 실패하게 된다. 어떠한 사무나 생산업체에 나가있는 사람같이 하루 8시간 동안 책임량만 다하던 책임을 완수하지 모르나 간호원의 업무는 항상 필요한 때에 맞게 응급을 요하는 간호든지 처치는 시기를 늦추면 낭패를 맞게 된다. 항상 어떠한 응급환자든지

돌보아 줄 수 있는 인원과 물자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 법에 규정된 인원으로써 24시간 동안 감당하기엔 많은 애로와 부작용이 일어나리라 믿는다. 지방 개인병원에서는 이 숫자까지도 충당하지 못하고 간호원의 업무가 이중으로 과중되며 더구나 연장근무까지 계속되는 일이 있다고 하니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간호원의 천직이 봉사, 친절로 환자를 위한 최대한 기술기여와 정확한 간호에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너무도 많다. 또한 외래환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인원만 보고 그 이상의 환자에 진료거절을 할 때 또한 거기에 수반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으리라 본다. 더욱이나 환자가 많이 집중하는 종합병원에서 인원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리라고 본다.

셋째, 4시간마다의 30분의 휴식, 즉 8시간중 1시간의 휴식이 간호원의 업무 중에는 어렵다. 타직장이나 회사는 업무를 보다가도 12시 벨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개인 시간을 갖거나 휴식을 위한 안정을 하지만 임상간호원의 경우 휴식(?)도 환자실에서 또한 점심식사도 환자 멀리 떨어져 마음놓고 할 수 없다. 항상 병원내 식당에서 교대로 식사를 해야 한다. 결국 휴식 시간은 간호원의 업무에서는 힘들다. 특별히 간호원의 입장에서 특별한 조문을 삽입하여 하루 24시간을 4회 교대하여 근무시간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뒤 근무중 6시간동안은 환자를 위한 전인간호로 최선을 다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전반에 관해 규정된 것이 근로기준법이긴 하나 근로자도 각양각색의 위치에서 자기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규정은 본 근로기준법에 명시한다 하더라도 특수한 환경과 직종에 종사하는, 즉 간호원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예외 규정이나 간호원의 업무를 규율하는 의료법에 위임시켜 현실에 부합된 규칙과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④ 우리가 바라는 사회

간호업무는 물건을 파고사듯 금액을 계산하는 이권문제가 아니다. 간호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육체적, 정신적인 면으로 만족해야 한다. 적어도 전문교육을 받은 자로써 자신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우는 있어야 한다. 즉, 우리의 육체나 정신적으로 만족 건강해야 함은 우리가 안정된 간호와 치료를 돕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봉사와 간호가 아무 댓가없이 행해지기에는 우리는 불편과 불안정이 따르며 인격적인 비애가 있게 된다. 경제적인 불안정은 이차적으로 생활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결코 우린 만족한 진료에 만족한 대인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결론이다. 우리의 노력에 합당하는 사회의 정당한 대우, 인정, 다시 말하면 어렵고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업종에서 일하는 자에게 충분한 보상과 대우가 주어져야만 한다. 즉 객관적인 의미에서 타당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심전력으로 환자에게 모든 지식과 기술을 동원하여 간호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큰 불치병이나 악성질병의 환자라도 간호원과의 만족한 대인관계에서 치료나 간호에 적극협조하여 바람직한 목적을 얻을 것이다. 또한 사회를 순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기도 할 것이다.

⑤ 임상간호원의 자세

우리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만 되겠다. 아무리 사회의 제도와 법규가 조금의 모순이나 부조리가 있더라도 간호원은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는 간호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앞에 근로기준법 몇몇을 들어 얘기했지만 만족한 처우개선이 있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간호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박애의 정신과 건강유지, 질병치료 및 예방에 관한 충분한 과학적 지식과 아울러 환자를

<41페이지로>

다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들과 마음이 통하는 길만 찾으면 자기의 소신은 그들과 함께 실현될 것이다. 별로 의식도 안하고 압력도 느끼지 않는 권위야말로 가장 완벽한 권위인 것이다.

2. 권위는 책임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 특성에서 나온다. 권위는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행사하는 것이다.

3. 남의 일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무지와 동거하는 사람이다.

4. 가장 잘 다스리는 사람은 가장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5. 간호원장이나 수간호원은 일을 혼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나누어서 모두에게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6. 부하직원에게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

7. 지배욕이 없는 사람이 좋은 지배자가 될 수 있다.

8. 간호에 임했을 때 작은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의 작은 일에 대해서는 소심하지 말 것이다.

Nightingale의 간호의 발상은 여성의 재발견과 인간의 건강을 위한 입장에서 사실에 대한 진실한 관찰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어떤 현상을 관찰할 때는 그 현상 뒤에 숨어 있는 문제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할 줄 알았으며 그의 사상은 단순한 간호행위에만 그치지 않고 항상 간호, 과학, 종교의 연결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Nightingale정신이란 무엇인가? Nightingale=백의의 천사] 또는 「Nightingale 정신=봉사와 희생정신」이라는 이미지가 일반화된 것이 우리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풍조처럼 유포되었음은 매우 유감스럽다. 사실 그의 정신은 다른 측면으로 발휘되었다. 즉 종교파벌이나 관료의식에 젖은 관료나 군의관들을 제쳐놓고 오로지 처참한 부상병의 버려진 인간성 회복을 위해 냉정한 지혜를 살려 강철같은 의지와 행동력으로 야전병원을 개척한 것이다. 크리미아 전쟁에서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 후 그의 50년간의 업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흐려지고 있으나 그의 크리미아 전쟁에서의 경험은 간호의 출발점에 불과했다. 그는 계속 영국 육군의 의료제도, 병원제도개혁, 병원건축, 건강교육, 인도에 있어서의 위생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는 등 놀라운 활동을 했다. 그는 자격있는 유능한 간호원에게 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음을 보아 저임금, 무보수는 Nightingale 정신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Nightingale은 현실을 직시한 합리주의로 문제를 타개하려 했고 구체적 내용으로 제안한 일이나 저서는 물론 유명잡지에 원고료 기고한 일 등을 보아 홍보활동에 매우 능란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목적수행을 위해서는 일보도 양보 못하는 자주, 자립, 불굴의 정신과 천부의 자질을 겸비한 Nightingale은 당대에 보기 드문 도량이 큰 여성선각자였다.

<18페이지에서>

안전하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사람에게는 생활이 있고 환경이 있고 개개인의 개성이 있다. 간호를 전문으로 하는 직업인으로 그 본 바탕이 아무리 잘못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즉 간호해야 되는 대상은 정신과 육체에 병을 가진 대상이 아닌, 균형을 잃은 환자만큼 우리의 업

무는 양심껏 이행해 나가야 한다. 물론 어느 직장이나 사회에서 준수해야 할 도덕과 윤리가 있지만 간호원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환영과 인정을 받는 직업여성 중 직업인이어야 한다. 나 스스로 조금은 바보스럽고 손해보는 입장에 있다손 치더라도 좀더 오래 늦게까지 남아 남을 사랑하는 인간이 되어보자고 다짐해 본다.

<36페이지에서>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3만여명이 넘는 한국 간호원 면허 소지자가 다 같이 생각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부끄럽고 있는 참간호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바랍직한 간호라고 생각하며 이 참간호에 나이팅게일의 생명관

을 덧붙여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직업의식보다는 생명이 있는 개체생명이 있는 집, 생명이 있는 읍, 면, 생명이 있는 국가, 생명이 있는 인류를 다루는 간호를 할 수 있는 참간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